

베네수엘라 정치경제 현황과 전망

김기현

베네수엘라의 경제상황은 기초체력만 놓고 볼 때 실제 그렇게 나쁘지 만은 않다. 베네수엘라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의 생산량과 수출량은 국제유가상승을 이끌기 위한 차베스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1997년 각각 328만 bpd(일일 원유생산량)와 306만 bpd에서 2010년 222만 bpd와 169만 bpd로 상당부분 감소했지만, 2010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최근 생산량과 수출량은 각각 230만 bpd와 170만 bpd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국의 투자에 힘입어 생산량과 수출량이 더욱 증가할 예정이다. 또한 초중질유가 전체 매장량에 포함되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1995년 644억 배럴 수준에서 2013년 2,975억 배럴 수준으로 급상승했다. 유가 또한 최근 배럴당 100 달러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2010년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베네수엘라 경제가 안고 있는 이중환율, 자본유출, 생필품 부족, 물가상승 등의 문제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가장 근본적 요인은 차베스주의에 대한 자본의 우려와 불신에 있다. 차베스주의에 대한 자본의 대응은 차베스 정부 시작 이래 베네수엘라 자본수지의 지속적 적자로 나타났다. 물론 2008년까지 자본수지 적자는 유가상승에 따른 경상



SICAD II를 발표하는 마두로 현 베네수엘라 대통령 (출처: <http://camersur.com/>)

수지 흑자의 대폭적 증가로 상쇄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유가가 하락 안정되었고 또 최근에는 국내 생산 감소로 인해 생필품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의 폭이 감소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자본수지 적자 규모보다 작아짐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고도 2011년 298억불에서 2013년 211억불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중환율, 생필품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마두로 정부는 최근 외환통제와 가격통제를 완화하는 새 외환 시스템인 SICAD II를 발표했다. SICAD II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자유외환시장으로서 3월 24일 개장 당일 환율은 달러당 51.86 볼리바르였다. 이로써 SICAD II는 볼리바르화를 사실상 평가절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로서 베네수엘라의 환율은 생필품이나 정부 조달품 수입 시 적용되는 공식 환율(1달러 당 6.3 볼리바르), 입찰형태의 외환공급제도인 SICAD I 환율(1달러 당 약 12 볼리바르), 암시장 환율(1달러 당 80볼리바르), 그리고 SICAD II 환율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베네수엘라는 소비재의 약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출의 90% 이상이 석유이기 때문에 평가절하가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수출 증가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따라서 공식 환율을 통해 불

리바르화의 과대평가를 유지한 것은 수입에 의존하는 생필품의 가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빈곤층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볼리바르화의 평가절상을 유지해온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수입물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과도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한편으로 가격통제로 인해 사재기나 빼돌리기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함으로써 외환통제와 가격통제는 오히려 생필품 부족과 전체적 물가상승을 야기했다. 결국 외환통제로 인한 생필품 부족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SICAD II는 그러한 문제를 다소 완화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이루어졌다. 마두로 정부는 SICAD II를 통해 볼리바르화를 평가절하하고, 달러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수입을 늘리고, 그로 인해 생필품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한다.

물론 생필품 수입에 필요한 외환의 80%는 여전히 공식 환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SICAD II로 인해 생필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SICAD II는 수입 생필품 가격의 상승 없이 공식적 평가절하를 통해 암시장 환율을 진정시키고, 동시에 달러 공급의 확대로 생필품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한때 달러당 88볼리바르까지 치솟았던 암시장 환율은 SICAD II 도입 이후 그와 비슷한 수준에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문제는 SICAD II에 공급할 달러가 어디서 나오는가? 또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재정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SICAD II 시장에 공급되는 외환의 규모가 제한적이라면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최근 베네수엘라의 외환사정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자본수지 적자로 인해 최근 외환보유고의 감소가 눈에 두드러질 정도이다. 달러표시 채권의 발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본 유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물론 중국 자본이 대량 유입되고 있고, 외환보유고 외에 비축된 자금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계속되고 있는 시위 모습 (출처: <http://www.clarin.com/>)

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당장에 디폴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유가가 100달러 정도를 유지한다면 베네수엘라 경제는 어렵지만 현 상황을 유지해 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SICAD II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경제를 여전히 불신하고 달러 매입을 계속 확대하고자 한다면 마두로 정부가 언제까지 그러한 공격에 맞서 저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마두로 정부 아래에서 베네수엘라 경제의 미래는 유가와 함께 경제주체들, 특히 자본가들의 행태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시위는 명백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시위대는 생필품 부족이나 물가상승 등 경제적 요인을 시위의 주요 이유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시위를 주도하는 학생이나 중산층들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는 계층은 아니다. 생필품을 사기 위해 하루 종일 줄을 서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달러를 손에 넣기 힘든 빈곤층들이다. 결국 이번 시위의 궁극적 목표는 작년 지방선거 이후 선거를 통해서 마두로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반대파

세력들이 시위를 통해 그를 조기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시위가 마두로 정부를 몰아내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두로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빈곤층을 시위세력들이 얼마나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현재 시위는 사실 대도시의 부유한 지역에 제한되어 있다.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피부색만 봐도 그들이 사회의 어떤 계층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시위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물가상승과 생필품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시위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빈곤층의 합세 없이 학생과 중산층만으로 시위는 결국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시위대는 물가상승과 생필품 부족 등의 문제를 부각하면서 빈곤층의 합세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빈곤층은 부족한 생필품을 사기 위해 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서 줄을 서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마두로 정부에 대해서 여전히 지지를 보낸다. 이는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줄을 서는 일 자체가 싼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유익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빈곤층은 비싸서 물건을 살 수 없는 것보다는 비록 긴 줄을 서더라도 생필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마두로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현재 시위의 성공 여부, 즉 마두로 정부의 지속 여부는 결국 빈곤층이 현재와 같은 전반적 물가상승이나 생필품 부족에 따른 수고스러움을 얼마나 참고 견딜 것인가에 달려있다. 한편 SICAD II를 통해 일부 평가절하를 단행한 마두로 정부가 생필품의 현재 가격 수준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도 또한 중요한 변수이다.

그와 함께 대외적 요인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시위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한 서구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여전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두로 정부에 대해 지지를 보

내고 있다. 오히려 마두로 정부를 비난하는 미국이야말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외교적으로 거의 고립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시위가 지속되고, 진압 시 인권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마두로 정부를 계속 지지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김기현 - 선문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